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마르 7,6-8)



〈바리사이들을 꾸짖는 예수〉, 제임스 티소

[제1독서]..... 신명 4,1-2.6-8

[제2독서]..... 야고 1,17-18.21ㄴ-22.27

[화답송] 시편 15(14),2-3ㄱ.3ㄴㄷ-4ㄱㄴ.5
(◎ 1ㄱ)

[복음 환호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복음] 마르 7,1-8.14-15.21-2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 봉헌성가: [340] 봉헌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성가: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 파견성가: [285] 103위 순교 성인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때에 ¹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려왔다가,
²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³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⁴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⁵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가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울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⁷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⁸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¹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¹⁵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²¹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²²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²³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When the Pharisees with some scribes who had come from Jerusalem gathered around Jesus, they observed that some of his disciples ate their meals with unclean, that is, unwashed, hands.
 - For the Pharisees and, in fact, all Jews, do not eat without carefully washing their hands, keeping the tradition of the elders.

And on coming from the marketplace they do not eat without purifying themselves.

And there are many other things that they have traditionally observed, the purification of cups and jugs and kettles and beds. -

So the Pharisees and scribes questioned him,
 “Why do your disciples not follow the tradition of the elders but instead eat a meal with unclean hands?”

He responded, “Well did Isaiah prophesy about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is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in vain do they worship me, teaching as doctrines human precepts. You disregard God's commandment but cling to human tradition.”

He summoned the crowd again and said to them,

“Hear me, all of you, and understand. Nothing that enters one from outside can defile that person; but the things that come out from within are what defile.

From within people, from their hearts, come evil thoughts, unchastity, theft, murder, adultery, greed, malice, deceit, licentiousness, envy, blasphemy, arrogance, folly.

All these evils come from within and they defile.”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이를 따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부정 규정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이 말씀은, 악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는 책임을 미룹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창세 3,12). 이러한 핑계와 책임 전가는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아닐까요? 더욱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피해 숨어 있었지요(창세 3,8 참조). 잘못을 저지르고는 하느님의 존재가 불편해졌기에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소외시킨 것입니다.

이후 카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한 나머지, 들로 데리고 나가 죽이고 맙니다(창세 4,1-8 참조). 이처럼 하느님과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소외시키게 됩니다.

죄를 극복하고 마음을 정화하려면 제2독서 말씀처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 모두는 가정의 복음을 세상의 기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 제9차 세계가정대회 폐막 미사에서 -

“교회는 세상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주변부로 전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복음을 세상의 기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 피닉스 파크에서 열린 제9차 세계가정대회 폐막미사에서 전 세계 가정에게 가정의 기쁨으로 세상을 바꿔 모든 이가 사랑받고 환대받으며 서로 헌신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교황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세상과 마음, 가정, 집, 본당에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데, 이는 우리의 가정과 각 세대를 통해 새로운 성령강림을 약속하시는 것”이라면서 “우리 시대는 이러한 격려가 필요하며 바로 가정의 평신도들이 격려를 보낼 책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제9차 세계가정대회는 ‘가정의 복음, 세상의 기쁨’을 주제로 아일랜드 더블린대교구에서 8월 21일-26일 열렸다. 세계가정대회는 1994년부터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강화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교황은 전 세계에서 모인 7만여 명의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가정이 당신 사랑의 기쁨을 전 세계에 전하는 봉화가 돼 주길 바란다”면서 “기쁘지만 때로는 고통받는 가정들이 서로 신앙으로 의지해 주님의 사랑을 세계에 증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황은 25일 더블린의 교황대사관에서 아일랜드교회의 성추행 피해자 여덟 명을 만나 사죄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과 이에 대한 은폐 행위를 ‘인분’에 비유하며 비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 대한 성직자와 수도자의 성적·육체적 학대 행위가 대규모로 일어나 교회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교황은 지난 2015년 더블린을 세계가정대회 개최지로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세계가정대회를 계기로 아일랜드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다.

교황은 폐막미사 중 참회의 기도를 하며 “우리 함께 아일랜드에서 성직자와 수도자에 의한 학대, 곧 물리적·정서적·성적 학대에 대해 용서를 청하자”면서 “특별히 사제, 수도자 및 교회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자행된 온갖 학대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를 계속해 정의를 실천하자”면서 “주님께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청하자”고 기도했다. 다음 세계가정대회는 2021년 로마에서 열린다.

<가톨릭신문>

9월 순교자 성월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축하합니다”

제78차 영세식 · 환영식

제78차 영세자를 위한 환영식이 지난 26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6개월의 교리공부를 마치고 8월 24일(금)에 세례를 받은 이들은 미사 중 신자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고 환영식에 참가해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눴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그동안 힘이 되어 준 가족들과 선교부원들, 교리 교사들, 봉사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번 78차에는 박오도 스테파노(81세), 심오영 마리아(82세), 심상봉 요셉(83세) 영세자들이 고령의 나이에 불구하고 열심히 교리공부를 마쳐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교육기간 중 정미경 헬레나 자매는 출산을 하고 박현지 에디타 자매는 혼인을 했으며, 장예솔 나탈리아 자매는 결혼식(9월 1일)을 앞두고 받은 세례여서 더 없이 기쁘고 뜻깊었다.

이인표 가브리엘 형제(선교부원, 78차 담당)는 “세례받을 때의 마음을 늘 간직하기를 기도하겠다”며 축하했고, 원철희 토마스 선교부장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난 첫 마음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년 새 신자들을 위해 리본을 제작해 준 신 카타리나 자매와 78차 신자들에게 목주 주머니를 만들어 선물한 노월승 소피아 자매 그리고 아침부터 환영식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준 성모회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79차 예비신자들은 9월 9일(일) 입교식을 하고 6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쳐 2019년 2월 22일(금)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제78차 영세자

- 곽유리(아벨라)
- 김말숙(수산나)
- 김승선(요세피나)
- 김정민(스텔라)
- 김종운(요셉)
- 김태완(안드레아)
- 김판순(그레이스)
- 박오도(스테파노)
- 박현지(에디타)
- 변영태(안드레아)
- 심상봉(요셉)
- 심오영(마리아)
- 이금자(노엘)
- 이양순(미카엘라)
- 이한상(패트릭)
- 장예솔(나탈리아)
- 정미경(헬레나)
- 주현주(올리비아)
- 주희량(잔나-견진)
- 최미경(아벨라)
- 최호연(안나)

꾸르실료 ‘회심의 밤’



꾸르실료 ‘회심의 밤’ 이 지난 8월 24일(금) 오후 10시에 본당에서 열렸다. 3박 4일 꾸르실료 교육 때의 감동을 떠올리며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취지로 처음 시도된 ‘회심의 밤’에는 타 본당 신자를 포함한 80여 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이 참석하였다.

1부는 서경원 마르티노 간사의 ‘회심의 밤’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신부의 ‘회심’에 관한 강론이 이어졌으며, 감동적 영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짧은 휴식 후 시작된 2부는 백 울리안나 자매의 나눔과 촛불봉헌식, 성체강복식을 끝으로 새벽 1시에 마무리되었다.

세 시간 여 동안 꾸르실리스따들은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현재의 삶의 위치를 되돌아 보고, 고요 속에서 좀 더 하느님 안에 깊이 머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늦게까지 함께 해 주신 백인현 신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연령회·교육부 주관 “장례 절차 및 연령회의 역할” 세미나



“장례절차 및 연령회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26일(일) 친교실에서 진행되었다. 본당 연령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들의 죽음을 맞은 가족들이 장례 준비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과 정보를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홍익훈 요셉 연령회장은 ‘장지를 구입할 때의 비용과 고려 사항, 기본 장례 비용과 비용 절약 방법, 장례 물품 선정과 장의사 선정, 상을 당했을 때의 대처 사항과 연령회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2018 동중부 한인성소대회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 Conference 2018

“와서 보시오”
오전 1:30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보다 깊은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한인 사제의 수도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준비한 강의를 신나는 분위기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살결 파크로 식당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SATURDAY,
OCTOBER 6, 2018**

문의: 성소위원회 703-493-1185

후원 단체: 연령회 교육 성소국, 연령회 교육 다문화선교국, 살결 파크로 식당

FEATURING:

- Fr. Michael Park, 대림 성당
- Fr. James Lee, 대림 성당
- Fr. Christopher Lee, 대림 성당
- Fr. Myunghee Chang, 대림 성당
- Fr. Michael Harberg, 대림 성당
- Fr. Myunghee Park, 대림 성당
- Fr. Myunghee Chang, 대림 성당

www.kacatholic.org/2018dayofprayer
Email: mchong@kacatholic.org
Phone: 434-949-0000

22nd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 2018

Keeping Clean

Gospel MK 7:1-8, 14-15, 21-23 (See the page 2)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tells the Pharisees that having your soul clean from sins is more important than keeping your body clean!

But that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be dirty. God wants us to keep our bodies and our souls clean. We keep our bodies clean when we wash our hands or take a bath. Do you know how we keep our souls clean?

When someone does a big sin he or she needs to go to confession to get cleaned up. Confession cleans away our little sins too. Other things that take away small sins are going to Holy Communion, praying, and blessing ourselves with holy water.

www.thekidsbulletin.com

Saint Story

St. Teresa of Calcutta

Feast date : September 5

Agnes Gonxha Bojaxhiu was born in Yugoslaviain 1910. Her father died when she was 8. At age 12 she knew God wanted her to be a Missionary.

When she was 19, Agnes became a nun and took the name Teresa. She taught at a school for rich girl in India. On a Train when she was 36, Sr. Teresa felt God call her to serve the very poor. She got permission to take a new habit and start a school for poor children. Soon other women joined mother Teresa to help the poor and dying. Mother Teresa knew that they could not continue without taking time every day to talk with Jesus. In 1979 Mother Teresa won the Nobel Peace Prize, but she stayed humble and used every chance to tell the rich and powerful people to protect the poor and weak.

Saint Teresa of Calcutta died on September 5th, 1997, and She was *canonised* (recognised by the church as a saint) on September 4th, 2016.



Mother Teresa's official canonization picture was painted by Charlotte artist Chas Fagan

We can learn from her to defend and help those who can't help themselves, especially the poor and unborn children. We also learn from her example that we need to spend time in prayer with Jesus every day.

2018-2019

First Day of Sunday School



WHEN Sun., Sept. 9, 10 am

WHERE Gymnasium
(Hasang Building 2nd Floor)

- EVENTS**
- Opening Ceremony
 - Introduction of Catechists & Staff
 - Classroom Announcement
 - Parents Orientation
 - Parents' Classroom Visit & Meet the Teachers

St. Paul Chung
Youth Choir & Orchestra

OPEN AUDITION

We are welcoming any strings & especially many singers for upcoming audition.

- **WHEN** : Sunday, Sep 9th, 1pm
- **WHERE** : Hasang Building B #7
- **WHO** : 7th to 12th Grade
Violin, Viola, Cello, Flute, Clarinet
- **SINGER** : 6th grade to 12th grade
- 1 self selected piece, sight reading and Scale (up to 3 flats/3 sharp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tephania Cha (703-725-3167)

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9월 2일(일) 오전 11:30(B-1,2)

2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9월 2일(일) 오후 1시(B-1)

3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 9월 2일(일) 오후 1시(B-3)

4 제79차 예비신자 모집

• 접수 : 매 주일 8시, 10시 미사 후(선교부 테이블, 친교실)
• 입교식 : 9월 9일(일)
• 문의 : 사무실 (703)968-3010
원철희 토마스 선교부장 (703)203-0332

5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영성체 받은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까지
• 신청 : 9월 1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1-0333

6 2018년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등록 마감

• 등록 마감일 : 9월 2일(일)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이번 주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기간 : 2018년 9월 4일 - 2018년 12월 2일
• 대상 : 전 신자와 일반인 20세 이상 • 등록금 : \$50(점심제공)

7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개강식

• 일시 : 9월 4일(화) 오전 9:20(하상관 #110)
• 수강생과 강사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율리아나 교장 (703)217-2775

8 병자 영성체

• 일시 : 9월 7일(금)
• 신청 : 조영인 형제 (703)264-0050

9 성체강복

• 일시 : 9월 7일(금) 오후 7:30 미사 후

10 회장단 회의

• 일시 : 9월 7일(금) 오후 8:10(회의실)

11 공동체 기도회 모임

• 일시 : 9월 8일(토) 오후 8시
•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2 주일학교 개학

• 일시 : 9월 9일(일) 오전 10시(체육관)
• 개학식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문의 : 윤정보일 교감 (703)371-3589

13 하상 한국학교 교사 보조·봉사자 모집

• 기간 : 2018년 9월 8일 - 2019년 5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 봉사 시간에 따라 대통령 봉사상이 수여됩니다.
• 문의 : 육옥영 교감 (703)598-5540

14 바오로 월례회의

• 일시 : 9월 9일(일) 오후 1시(나눔터)
• 20대, 30대 기혼자 모임인 바오로회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이메일 : sleeh@yahoo.com

15 단체장 회의

• 일시 : 9월 9일(일) 오전 11:30(B-3,4)

16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9월 9일(일) 오후 1시(B-3,4)

17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 프로그램 소개 세미나(교육부/카운티)

• 일시 : 9월 10일(월) 오후 12:30 - 오후 2시(친교실)
• 대상 : 시니어 시티즌
• 내용 : 카운티 제공 무료 시니어 프로그램 서비스 소개
• 강사 : 카운티 자원봉사자
• 문의 : 김문자 마리아 (703)615-9910

18 마약성 약물 위기의 시기에 희망과 치유 찾기 (알링턴 교구 주최)

• 일시 : 9월 29일(토) 오전 9:30(9시 미사) - 오후 3시
• 장소 : Good Shepherd Catholic Church
18710 Mount Vernon Hwy, Alexandria, VA
• 강사 : Dr. Michael Home, Psy.D.(임상부장)
• 등록은 9월 26일까지 RSVP:
events@arlingtondiocese.org 로 하시기 바랍니다.

19 뉴저지 파티마 본부(The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일일 성지 순례

• 일시 : 10월 13일(토) 오전 5시 - 오후 10시
• 접수 : 친교실 테이블(선착순 50명)
• 참가비 : 1인당 \$70(식사 포함)
• 자연 속에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과 함께 하는 은총의 자리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 김그라시아 (571)243-5054

감사합니다

제78차 영세자들이 본당에 감사헌금 \$2,950.00 을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2일(일)	연중 제22주일	8시 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의(오후 1시, B-3), CYO 오케스트라 나눔터 사용(오후 12시)
3일(월)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사무실 휴무(Labor Day)
4일(화)	연중 제22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5일(수)	연중 제22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실),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6일(목)	연중 제22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7일(금)	연중 제22주간	병자 영성체,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체강복(미사 후), 회장단 회의(오후 8:10, 회의실), CLC(오후 8시)
8일(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개학, 주일학교 교사모임(오후 1시, 교무실), 바오로회 모임(오후 1시, 나눔터), PW구역 모임(오전 11:30-오후 12:50, 나눔터)
9월 9일(일)	연중 제23주일	

2차 헌금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오전 8시, 10시) 미사곡 변경

• 자비송 : 320 • 대영광송 : 321
• 복음 환호송 : 366 • 거룩하시도다 : 322
• 주님의 기도 : 388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89
• 하느님의 어린양 : 324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2주간 : 2역대 26-29, 사도 8-9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6일(목) 오후 5:00-6:00
9월 7일(금) 오후 8:00-9:00
9월 9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가톨릭 뉴스

• 임 따라 한 평생 : 동정부부 초남이 성지의 성역화 사업에
전력을 바친 전주교구 김환철 신부의 이야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8월 26일(연중 제21주일)

주일헌금 \$ 7,906.20
교무금 \$ 13,92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7,140.00
특별헌금 \$ 147.36
2차헌금 \$ 0.00
합계 \$ 29,113.56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오전 9시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희,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공(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김용우(베네딕토), 김영지(세레나), 양소지(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재(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티폰스(제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나), 정미레(아네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모),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병기(펠릭스), 윤박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관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이호천(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마키엘) 703-881-115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생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